

곳곳에 사찰·탑... 여기가 바로 '불국토'



중국 동티베트 간쑤현의 상징인 백옥탑. 동티베트 어정 중 들린 마을의 중심에는 사찰과 탑이 항상 존재했다.



백옥탑에 마련된 마니차를 티베트 스님이 돌리고 있다. 마니차는 일반적으로 원통형이며, 측면에는 만트라가 새겨져 있다.



잠시 쉬어가는 곳에 마련된 여수행자들의 거처. 그들의 불심을 알 수 있게 한다.



링첸스의 석가모니불상. 한국이나 중국의 불상과는 달리 보관이 있다.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 동티베트를 가다 ②

중국 쓰촨 일원=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계 경제의 최강자로 떠오르는 중국은 현재 서부대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서부대개발의 중심에는 쓰촨(四川)이 있다. 그러다 보니 곳곳에는 도로가 증설되고 넓고 넓은 땅에 아파트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하지만 쓰촨성에서 서쪽 산악지대로 넘어가면 상황은 조금 다르다. 서쪽 산악지대에는 장족, 좡족 등 소수민족의 자치주가 있고, 여기에는 티베트 불교가 고스란히 전승 중이다.

조계종 교육원 동티베트 순례단이 쓰촨 청두를 출발해 아바장족자치주 자치주를 지나 오명불학원과 야칭스로 가기 위해 랑탕, 로취 등으로 이동하니 현대적 중국이 아닌 '세계의 고원' 티베트의 일부를 만날 수 있었다.

불교는 곧 티베트인들의 삶

산을 넘어서는 곳곳에는 사찰이 존재했다. 이름이 있는 큰 사찰도 있었지만 한 곳에 모여 수행하는 곳도 있었다.

순례 2일차 요의(尿意)를 해결하기 위해 잠시 멈춘 곳에도 티베트 특유의 하얀 탑, 사찰이 보였다. '무명(無名)'의 사찰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티베트 불교 여신도들의 수행처였다. 이들은 일정 시간 출가해 수행을 하며 불교를 배운 후 다시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만들고 재가 불자로써의 삶을 산다. 물론 일부는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수행을 하기도 한다.

티베트 불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형의 상징은 풍다(風馬)와 타르초(經幡, 불경을 적은 깃발)이다. 풍다와 타르초는 오색의 천에 불경을 뿔뿔히 기록해 놓

았습니다. 오색은 우주의 근본을 상징한다.

풍다와 타르초는 경전을 뿔뿔히 기록해 바람에 흩날리게 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 천하에 전달되게 한다는 의미다.

이동하는 중에는 티베트 불교 수행의 일부인 오체투지를 하는 티베트인을 만날 수 있었다. 동행한 가이드에 따르면 티베트인들은 다른 곳에 태어나도 죽을 때는 그들의 주교인 라싸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한다.

간쑤로 넘어가면서 티베트 문화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곳들이 많았다. 산 능선에는 범어로 된 경구들이 큼직이 새겨져 있다. 또한 그들의 독특한 장례문화인 '천장(天葬)'이 이뤄지는 곳이 인근에 있다는 표지도 있었다.

조장(鳥葬)이라고도 알려진 천장은 티베트인들에게 중요한 장례 풍습이다. 천장을 할 수 있는 전문가인 천장사나 스님이 시신을 칼로 자르고 뼈는 잘게 부숴 독수리의 먹이로 주는 천장은 우리에게 '진인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문화다.

티베트 천장을 연구한 심혁주는 "이는 망자의 영혼을 육신에서 온전히 분리시켜 좋은 곳으로 보내고, 영혼이 빠져나간 육신은 하늘의 사자로 불리는 독수리들에게 '보시' 해 마지막으로 먹을 썩는 것"이라고 천장의 목적을 설명했다.

현지 가이드는 천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독수리가 해부한 부위의 일부를 섭취하지 않으면 그 부위는 극락으로 갈 수 없다고 티베트인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천장이외에도 탑에 시신을 모시는 탑장과 일반적인 화장, 물에 시신을 띄우는 수장, 시신을 묻는 토장(塋장)이 함께 공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장은

평소 죄를 지은 사람이 죽었을 때 이뤄진다. 시신을 불로 태운 후 묻는데, 이는 불을 통해 이생에 지은 죄업과 업장을 태우고 내생에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길 바라는 그들만의 기원이 담겨 있다.

천장도 그밖에 장례문화도 고산지대인 티베트의 자연환경과 불교철학에 기반을 둔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티베트인들에게 현생의 삶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다시 태어날 것을 믿는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삼국·고려시대가 이랬을까

순례단이 여장을 풀었던 마을의 중심에는 항상 사찰이 존재했다. 간쑤현에는 지역의 상징인 백옥탑이 우뚝 서 있었으며 단파에 이르러 만난 링첸스는 티베

마을 중심에는 어디나 사찰이

척박한 환경, 불심으로 이겨내

천장·수장 등 장례문화 '독특'

트 불교의 영욕을 보여줬다. 링첸스는 11대 달라이라마의 탄생 사찰이자 10대 판첸 라마가 다녀간 곳으로 알려진 사찰이다. 주요 법당과 교육관 이외에는 황망할 정도로 낙후된 사찰이었지만 최근 불사가 새롭게 이뤄지고 있었다.

간쑤현의 상징인 백옥탑은 근래에 조성된 곳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주요한 성소(聖所)다. 순례단이 방문한 당시에 3대에 걸친 가족들과 10대의 옛된 여자 아이들이 불공을 올리고 있었다.

순례기간 들렀던 마을들을 보면 여력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주택 옥상에 향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 중심에는 어김없이 사찰과 탑이 존재했다.

순례단장 정우 스님(군종교구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환희와 법열에 젖어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되새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스님은 "티베트 불자들을 보면서 '고려시대, 삼국시대의 한반도가 이렇게 않았을까' 생각해보았다"면서 "이런 순례를 통해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인락국'이라는 것을 알았다. 보리심을 이룬다면 매순간, 모든 곳은 극락"이라고 말했다.

순례단, 현지 불교와도 교류

조계종 순례단은 주요 순례지인 오명불학원과 야칭스 외에도 들리는 마을의 사찰에서 지원금 등을 전달하며 교류했다.

순례 3일차에 참배한 중국사에서 순례단은 주지인 톱페 스님과 까마리세 림포체와 만나 환담을 나누고 지원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톱페 스님은 "멀리 한국에서부터 이곳까지 와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이곳에는 250명의 수행자가 모여 수행을 하고 있다. 모두 부처님의 제자로 서 만난 인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7월 7일 참배한 링첸스에서 순례단은 한국에서 가지고 온 108염주와 보시금을 현지 스님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일연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현재 경주)을 이렇게 묘사한다. "서라벌에는 17만 8936호가 모두 기와집으로 즐지어 있었는데 별을 뿌려 놓은 듯 절이 많았고, 기러기 줄지어 가듯 탑이 많았다."

동티베트 순례 기간 중 이동했던 모든 경로에는 사찰과 탑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열악한 환경 속 불심(佛心)으로 살아가는 불자들이 있었다. 우리가 입으로 늘 외치는 '불국토'는 티베트를 의미할지도 모르겠다.

TIP! 고산병을 이기는 법

동티베트는 3000~5000m에 이르는 상당한 고산지대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 순례단도 일부 스님들은 고산병에 시달렸다.

고산병은 낮은 지대에서 고도가 높은 해발 2,000~3,000m 이상의 고지대로 이동하였을 때 산소가 희박해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신체 부작용이다. 증상으로는 저체온증, 동상, 탈수 등이 나타난다. 가벼운 두통과 식욕부진을 보이는 것이 보통이지만 심할 경우 뇌와 폐에 물이 차는 뇌수종과 폐수종도 유발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중증의 고산병은 하산이 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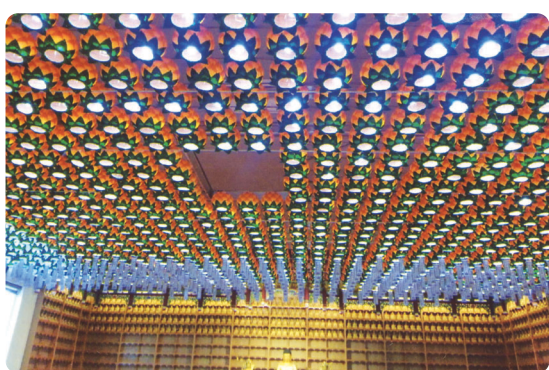
개인차가 심하지만 3000m 이상에서는 고산병을 거의 경험한다고 봐도 좋다. 예방약은 일반적으로 이노제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추천한다. 기지는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갔지만 이노제만으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다. 중국 현지에도 고산병 약인 '홍경천'이 있지만 상당히 고가다. 이런 예방약은 고산 이동 1~2일 전부터 먹어두는 것이 좋다.

고산에 갈 경우 행동은 최대한 천천히 하고, 물을 자주 조금씩 섭취해야 한다. 과도의 음주와 흡연은 삼가야 하며, 샤워도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20년의 경력

연등 자동 승강장치



원주 보문사 대법당

영가 위패단

(실용신안 제20-0439285 / 디자인등록 제30-0477206)



제주 월성사 위패단

인 등

(실용신안 제20-0439286 / 디자인등록 제30-0477201)



제주 월성사 인등

연 등



노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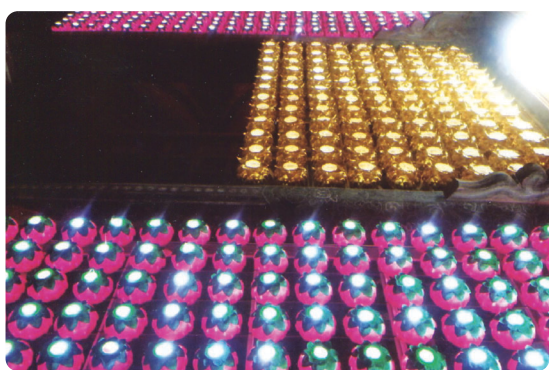
진분홍

영가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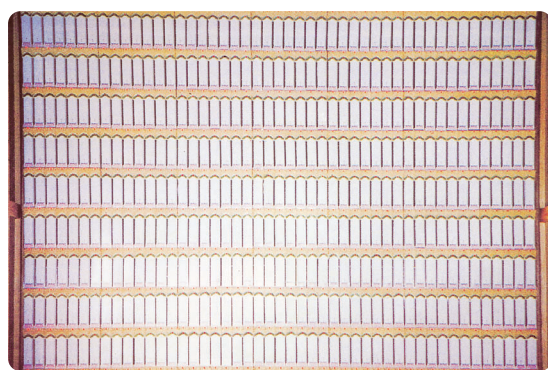
금등

바림등

만월등



월출산 무위사 대법당



장흥 보림사 위패단



각종 인등 견본



대나무 숲 부처님 (동불, 특수불, 각종 불상)

* 전문 기술진이 완벽하게 시공해 드립니다. *

정우불교예술원 www.jeongwoo.info

전화 : 010-3724-0455, 031)969-631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번